

실 곳 있지만 쉬지 못하는 청소노동자



서울캠 학생회관 휴게실에서는 제대로 서지도 못한 채 싱크대를 사용한다. 이곳을 사용하는 한 청소노동자는 “목 근육이 아파 물리치료를 받은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 우리가 일과 중 마주하는 모든 곳은 청소노동자의 손길을 거쳐 새롭게 태어난다. 고된 노동을 마치고 청소노동자는 휴식을 취하러 휴게실에 들어간다. ‘휴게실’이란 고된 업무로 지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휴게실은 마음을 놓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지난 8월에는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청소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 6주간 우리학교 청소노동자 휴게실 실태를 파악해봤다. 취재 기간 동안 목격한 열악한 휴게실은 좁고 더운 공간이었다.



오비스홀 휴게실에는 선풍기가 유일한 냉방기구다. 그마저도 2대뿐이라 12명이 생활하는 휴식 공간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캠퍼스 학생회관 휴게실에는 앉아서 쉴 공간은 있었지만 낮은 천장 때문에 이곳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평화의전당 1층에 위치한 휴게실에는 2명이 생활한다. 하지만 휴게실이 계단 아래 위치한 탓에 발소리로 인한 소음이 심하다. 결국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불편함을 겪는다.



서울캠퍼스 본관 휴게실 안에는 버젓이 정보처 서버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장보경 기자 jbg9687@khu.ac.kr

음악대학 한쪽 구석에 자리한 청소노동자 휴게실. 비가 내린 다음 날 아침이면 넓지 않은 방바닥의 절반가량이 물로 흥건히 젖는다. 한쪽 벽에서 물이 새는 탓이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청소노동자 A 씨의 출근 후 첫 일과는 밤새 고인 물을 닦아내는 것이다. 벽에 곰팡이가 슬어 악취가 진동해도 창문이 작아 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통로 앞에 휴게실이 위치한 나머지 문을 열어 두는 것 또한 쉽지 않다.

지난 9월 1일 우리학교는 ‘정규직 전환 합의서’에 의거해 비정규직 직원 22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전환 대상으로는 용역업체 및 학교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포함됐다. 우리신문은 학교 측과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해 환경이 열악한 휴게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휴게실이 열악한 근본적인 원인은 공간 부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고용부 가이드)’를 발표했다. 이는 휴게시설의 규모, 위치, 냉난방 설비, 소음 등에 관한 규정을 골자로 한다. 고용부 가이드에 따르면 사업주는 노동자 1인당 1㎡, 전체 최소 6㎡ 이상의 휴게시설 면적을 마련해야 하며, 휴게시설은 작업장 내에 설치돼야 한다. 또한 냉난방 시설과 환기 시설을 설치해 쾌적한 실내 환경에서 노동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가구와 비품을 제공해야 한다. 지하는 옥내 공기, 악취 등으로 인해 환경이 열악하므로 가급적 지상에 휴게실을 마련하라는 권고사항도 제시돼 있다.

국제캠퍼스(국제캠) 공학관 내에 위치한 휴게실의 한 쪽 벽은 방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겨울이면 난방을 해도 한기가 느껴진다. 뿐만 아니라 원래 하수관이 지나가던 자리에 휴게실을 마련한 탓에 여름이면 악취가 심하다.

예술·디자인대학관 내 휴게실은 옥상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청소노동자 B 씨는 “휴게실이 옥상에 있어 눈이 내리면 바닥이 미끄럽다”며 “정수기를 사용하려면 매번 아래층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불만을 언급했다.

서울캠퍼스(서울캠) 휴게실은 그 환경이 더 열악했다. 앞서 언급한 음악대학에는 2명의 청소노동자가 생활한다. 이곳은 빗물이 썰 뿐만 아니라 면적이 좁아 노동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고용부 가이드에 따르면 휴게시설의 면적은 최소

6㎡ 이상이어야 하지만, 이곳의 면적은 4.65㎡로 고용부가 제시한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냉방 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오비스홀 1층 계단 아래에 위치한 휴게실이 그곳이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12명의 노동자들에게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올해 여름은 악몽과도 같았다. 창문 하나 없는 휴게실 안에는 환풍기도, 에어컨도 없었기 때문이다. 청소노동자들은 “학생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통로에 휴게실이 위치한 탓에 출입문을 열기도 불편해 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학교 측에도 건의를 했지만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과 함께 돌아온 것은 선풍기 2대뿐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올해 여름철 더위로 인해 배탈이 나고 어지러움을 겪었다고 했다. 2주가 넘는 기간 동안 병원 신세를 진 노동자도 있었다. 청소노동자 C 씨는 “더위도 문제지만 환기가 전혀 안 돼 기관지가 망가진 것 같다”며 “서울대 노동자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했다”고도 말했다.

학생회관 1층에 위치한 휴게실은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할 만큼 낮은 천장이 문제다. 계단 아래 위치한 탓에 옷장과 싱크대, 앉아서 쉴 공간이 모두 낮은 천장 밑에 있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청소노동자 김영주 씨는 “서서 다닐 수가 없어서 목이 너무 아프다”며 “예전에 한 노동자는 목이 아파 물리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천장의 높이를 측정해보니 약 1m 50cm로 키가 크지 않은 사람도 똑바로 서 있기 힘든 높이였다.

심지어 이곳 휴게실은 여자 노동자 2명과 남자 노동자 1명이 함께 사용하고 있다. 그중 남자 노동자 최광희 씨는 “옷 갈아입을 때마다 불편함을 느낀다”며 “우리학교도 무슨 사건이 터지고 나야 개선이 되려나 싶다”고 말했다.

본관 1층 휴게실 안에는 정보처 서버가 설치돼 있다. 이곳을 사용하는 윤중복 씨는 “기계에서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고용부 가이드는 노동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휴게실 안의 소음을 50dB 이하로 유지하도록 권장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로부터 조언을 받아 휴게실 내 소음을 직접 측정해보니 소음 허용 기준을 16dB가량 초과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는 기계에 붙여 둔 돗자리를 가리키며 “전자파가 걱정돼서 붙여 놓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휴게실이 지하에 자리한 것도 문제다. 지하 3층에 위치한 약학대학 휴게실에서 생활하는 청소

노동자 D 씨는 “지하라서 습해 곰팡이가 많이 생긴다”고 말했다. 평화의 전당 지하 1층 휴게실을 사용하는 청소노동자 E 씨 역시 “환기가 전혀 안 돼 눈이 따갑고 머리가 아프다”고 말했다.

학교가 열악한 휴게실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서울캠 총무관리처 총무팀 이희포 팀장은 “서울대 사건 이후 자체적으로 휴게실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건물을 설계할 때 노동자 휴게실은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학생들의 강의공간과 교원들의 연구공간, 행정공간 배정이 가장 우선시 된다”고 말했다. 또 “그러다 보니 청소노동자 휴게실은 비교적 건물 내 자투리 공간에 배정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덧붙였다.

국제캠 또한 휴게실 환경 개선에 노력을 보이고 있었다. 국제캠 총무관리처 관리팀 정태일 계장은 “휴게실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해 왔다”며 “지난주에도 고장 난 것이나 개선이 필요한 곳이 없는지 전수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 계장은 “공간 부족 문제는 어디에나 있다”며 “청소노동자분들의 불만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근무 환경에 만족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휴게실이 열악한 이유는 본래 사람이 이용하도록 만든 방이 아니라 창고나 보관실 같은 건물 내 빈 공간을 개조해 마련했기 때문이다.

서울캠 오비스홀 휴게실은 구조적으로 에어컨 설치가 불가능하다. 본관 남자 휴게실도 정보처 서버를 옮기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휴게실로 쓸 빈 공간도 없는 상황이다. 다른 휴게실 또한 별도의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 뚜렷한 해결 방안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총무팀은 청소노동자 휴게실이 열악한 단과대학에 공간 확보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학생들과 교직원 역시 공간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이어서 쉽지 않다. 청소노동자 휴게실 환경 개선을 위한 공간의 확보는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기 힘들다. 빈 공간이 생겨나도 애초부터 공간 배정 논의에 청소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휴식시설 개선은 요원하기만 하다. 실제 한 청소노동자는 “신문에 나오면 뭐 달라지나요”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